

임상적으로 진단되어 체중 감량 후 호전된 비만 관련 사구체병증 1예

서울대학교병원 내과학교실

한승석 · 김치원 · 김호상 · 황영환 · 오국환 · 안규리 · 주권욱 · 김연수 · 한진석 · 김성권

A Case of Obesity-related Glomerulopathy about Clinical Diagnosis and Treatment by Weight Reduction

Seung Seok Han, Chi Weon Kim, Hyo Sang Kim, Yeong Hwan Hwang, Kook Hwan Oh
Cu Rie Ann, Kwon Wook Joo, Yon Su Kim, Jin Suk Han, Suhnggwon Kim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서 론 : 비만 관련 사구체병증 (Obesity-related glomerulopathy)은 체질량지수가 30.0 kg/m^2 이상인 비만 환자에서 발생하며 임상적으로는 신증후군 범위의 단백뇨를 보이고 조직학적으로는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 (focal segmental glomerulosclerosis)의 특징적인 소견 또는 사구체비대 (glomerulomegaly)의 소견을 보인다. 대체로 양호한 임상 경과를 거치고, 특히 체중 감량 시에 뚜렷한 호전을 보인다. 저자들은 단백뇨를 주소로 내원하여 임상적으로 비만 관련 사구체병증으로 진단하고 체중 감량 후에 호전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증 례 : 38세 남자가 단백뇨를 주소로 내원하였다. 10년 전에 건강 검진에서 단백뇨가 있다고 들었고 24시간 요검사에서 요단백이 2.3 gm 으로 나왔다. 이후 Cilazapril 2.5 mg 을 복용하면서 외래 추적 관찰을 하였으나 요단백에 큰 변화는 없었다. 6년 전인 2000년 11월에 본원 신장내과를 방문하였다. 내원 당시에 키 171 cm , 체중 117 kg 으로 체질량지수가 40.5 kg/m^2 이었다. 24시간 소변 검사에서 단백뇨가 $3,021 \text{ mg}$ 으로 나왔고, 혈액검사서에서 요소질소 13 mg/dL , 크레아티닌 1.1 mg/dL 로 나왔다. 비만 관련 사구체병증으로 의심하고 Enalapril 10 mg bid 와 Valsartan 40 mg bid 를 투약하고 체중 조절을 권유하였으나 환자는 체중을 감량하지 않았다. 2006년 5월에 혈청 크레아티닌이 1.5 mg/dL 로 상승하고 단회뇨 단백질/크레아티닌 비는 920 mg/g , 혈당이 212 mg/dL 로 나와 영양사와 상담 후에 체중 감량 계획을 세웠다. 이후에 환자는 운동과식이 요법으로 10개월에 걸쳐서 40 kg 을 감량하여 75 kg ($\text{BMI } 26.0 \text{ kg/m}^2$)을 유지하고 있으며 혈청 크레아티닌은 1.1 mg/dL , 단회뇨 단백질/크레아티닌 비는 250 mg/g 으로 호전되었다.

결 론 : 임상적으로 비만 관련 사구체병증으로 진단하여 체중 감량 후에 혈청 크레아티닌과 단백뇨가 모두 호전된 증례를 경험하였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본 증례는 국내의 첫 증례 보고로, 국내에서도 비만 환자에서 단백뇨가 있을 때, 비만 관련 사구체병증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다.